

## “광주·전남 통합, 주민 복지·혜택 높인다”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기자회견,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산업단지 고루 배치 경제 도약·공무원 무리한 인사·불이익의 없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민이 우려하는 복지 혜택 축소나 세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산업 분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최우선 고려된다. <관련기사 2·3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각각 차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 권익보호 방안과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 조직의 통합보다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복지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광주시는 통합 논의의 핵심 전제로 ‘불이익 배제 원칙’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면서도 당장 내 삶에 손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안에 주민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시·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 누리던 복지혜택 등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주민 부담(증세)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했다.

통합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 조항도 밟굴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 시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김영록 지사 역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통합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제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통합을 계기로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는 통합 시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기대 이상일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쓸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산업 균형 배치’를 해

법으로 내놓았다. 단순히 행정 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보다 첨단 산업이 들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광주권, 목포무안권, 순천여수광양권 등 3대 축에 미래 산업을 고루 배치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동부권에는 120만평 규모의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RE100 산단을 유통하는 등 산업 수요를 흡수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통합이 무너만 지방자치가 아닌 ‘연방제 주(State)’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나 에너지 허가권 등 중앙의 인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정신’의 계승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통합 명칭에 ‘광주’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통합특별법의 목적과 생활권 조항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문제와 관련, 통합 이후에도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광주 공무원이 원치 않게 전남으로 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 강제 인사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무원 역시 교육자치를 독립된 편으로 구성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 “한일관계 새로운 60년의 출발점”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정상회담

다카이치 “양국 높은 단계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이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한갑 즉 60년이 지났다.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서)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존재하기 마

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공개발언 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 하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또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관계의 간인함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한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구잡이 벌목 몸살 앓는 나무 ▶6면

광주 FC, 제주로 시즌 첫 승 사냥 나선다 ▶18면

일하는 청년 - 광주 시립도서관 사서 3인방 ▶22면

양 정상은 회담 장소인 나라현의 상징성도 부각 했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의 고향에서 뱃길 데 정말 특별하다”며 “이 지역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이었던 것 같다.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 서를 외교의 첫 기회로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제 고향인 나라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P assion [열정], V ision [꿈],  
T 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삼겹살, 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나눈다

‘비계삼겹살’ 막기 부위별 판매

‘삼겹살’도 부위별로 나눠 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삼겹살의 경우 지방 함량에 따라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각각 구분해 유통기로 했다.

앞삼겹은 데지의 흉추 5번에서 11번까지 붙어

있는 고기로 지방량이 적당한 게 특징이다. 돈차돌은 삼겹살 중간 부위에 해당하는 흉추 12번에서 14번 사이로 지방이 가장 많다. 뒷삼겹은 요추 1번에서 6번까지로 지방이 적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고기 차돌박이를 먹을 때 기름 많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며 “떡지방 삼겹살(비계가 많은 삼겹살)도 ‘돈차돌’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면

광주 FC, 제주로 시즌 첫 승 사냥 나선다 ▶18면

일하는 청년 - 광주 시립도서관 사서 3인방 ▶22면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